

전주에서 만나는 프랑스 사계

전주세계문화주간 ‘프랑스의 여름’, 24일 연화정서 개최

연꽃이 만개하며 여름 향기로 가득한 전주덕진공원에서 프랑스의 여름을 엿볼 수 있는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24일 오후 5시 덕진공원 연화정 마당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연중 운영중인 ‘2026 전주세계문화주간-프랑스편(여름)’을 개최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전주세계문화주간은 계절별 테마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주시 대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봄, 여름, 가을 시즌별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국제문화도시 전주의 매력을 확산하고 있다. 이번 여름 행사는 오감 만족의 문화 체험과

깊이 있는 인문학 강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적인 미를 담은 덕진공원 연화정에서 만개한 연꽃 경관을 감상하며 첼로 3중주 클래식 공연과 프랑스 와인 시음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프랑스 문학 특강으로 영혼을 채우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연화정도서관에서는 오는 31일까지 프랑스 문학 전시도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서울국제도서전’에 출품된 프랑스 문학 도서가 전시되며, 출판사 문학동네의 협찬으로 프랑스 고전문학 도서 등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불문학계의 거장인 김화영 명예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알베르 카뮈: 최후의 카뮈와 최초의 인간’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번 연화정 프랑스문학살롱에는 전주 시민 또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전주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서 선착순 접수하면 모집인원은 성인 50명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출판사 문학동네의 협찬으로 유료 독서완독 프로그램 ‘독과’ 2개월 이용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년 동안 전주세계문화주간을 통해 프랑스와 미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주한대사관 및 문화원 등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전시, 공연, 미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지평을 넓혀왔다. /이만호 기자



임실군은 지역 복지시설(효나눔주간재활보호센터)에서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신나는 예술배달’의 첫 번째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임실군, ‘신나는 예술배달’ 첫 시작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임실군은 지역 복지시설(효나눔주간재활보호센터)에서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신나는 예술배달’의 첫 번째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판소리, 대금, 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60여명의 관람객들은 흥겨운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공연과 함께 제공된 팝콘 나눔 행사도 더해져 문화공연의 즐거움을 한층 높였다. 특히, 평소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일상

에 활력과 웃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 총 10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으로 복지시설과 마을행사, 지역축제 등을 찾아가 공연을 이어가며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득수 군수는 “신나는 예술배달 사업이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전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일상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마당극 거장 김성녀 교수 초청 ‘다담’ 29일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다담의 7월은 한국 공연예술의 지평을 넓혀온 김성녀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가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 김성녀 교수는 연극·뮤지컬·창극·마당놀이를 넘나들며 대중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함께 높여 온 명인이다.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창극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었고, 1인 32역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현재는 후학 양성과 전통예술 계승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다담의 메시지는 “서로에게 ‘잘한다’는 추임새를 건네면 유쾌하게 인생길을 걸을 수 있다”로, 김성녀 교수가 박귀희 명창에게 가야금병창을 배운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공연사에 기록된 예술가로서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우리 음악 즐기기 순서에서는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를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윤이나(가야금)와 김성주(고수)가 함께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은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전화(063-620-2329)로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피오리움, 여름 맞이 특별 혜택

7~8월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남원시 달빛 정원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Fiorium)이 여름 피서철 방문객에게 시원한 휴식과 특별한 혜택을 선사할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7월 한 달간은 여름맞이 특별 기본가로 전시관의 문을 열어 누구나 성인 1만 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제한일 주간(7.13.~19.)에는 성인 7,000원 등 할인 폭이 더욱 커진다. 특히, 열대야를 피해 저녁 시간(18시~21시)에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최종 할인가에서 1,000원을 추가 할인하여 쾌적하고 가성비 높은 야간 피서를 즐길 수 있다. 방학을 맞은 학생과 남원 여행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 8월 말까지 ‘청춘 웰컴특가’를 통해 대학생은 4,000원, 청소년은 3,000원에 입장할 수 있다. 남원 주요 관광지 문화시설을 연계한 할인도 있어, 당일 광한투어리나 남원 관내 예술기관(미술관, 옷칠 공예관 등)을 방문한 영수증, 표, 인증 사진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3,000원이 즉시 정액 할인되어 알뜰한 남원 관광을 즐길 수 있다. 8월에는 특별한 의미를 더한 맞춤형 이벤

피오리움 7~8월 프로모션 총합리			
SUMMER FIORIUM			
7월 13~19일	7월 20~26일	8월 1~7일	8월 8~14일
01 기본가	02 기본가	03 기본가	04 기본가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청소년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어린이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05 기본가	06 기본가	07 기본가	08 기본가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청소년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어린이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09 기본가	10 기본가	11 기본가	12 기본가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청소년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어린이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트가 진행되어 광복절을 기념해 8월 한 달간 태극기 문양이 있는 의류나 소품 등을 착용하거나 제시하면 본인과 동반 1인까지 기본가 입장료의 반값을 할인받는다. 이어지는 칠월칠석 주간에는 커플 및 2인 방문객 중 1인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내내 쉼 없는 프로모션 릴레이를 펼칠 예정으로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에는 △어린이·청소년 및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조부모 대상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10월 남원 흥부제 연계 프로모션, 11월 시월리데이 프로모션, 12월 연말 한정판 브랜드 굿즈 증정 등 풍성한 프로모션이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3인 3색 인문학 작가전 개최

김제시립도서관은 ‘김제에서(書)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탄생한 책과 작가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역의 책과 인문학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도서관 2층 ‘김제에서(書) 찾기’ 코너에서 ‘3인 3색 인문학 작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봉남면 출신의 김원익, 김화성 작가와 황산면 출신의 장재선 작가 등 김제가 배출한 대표 인문학 작가 3인의 삶과 작품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각 작가의 대표 저서와 약력, 주요 활동 자료를 함께 전시해 지역에서 시작된 인문학적 시선이 우리 사회와 세계로 확장되어 온 발자취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원익 작가는 현재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세계 신화 연구자이자 인문학자로, 그리스·로마 신화를 현대인의 삶과 연결해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며 국내 신화 인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 『브랜드로 읽는 그리스 신화』, 『신화, 인간을 말하다』 등 20여권의 저·역서를 통해 인간과 삶의 의미를 신화로 조명하고 있다. 김화성 작가는 전 동아일보 기자이자 문화·여행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해 왔다. 『전라도 천년』, 『꽃밥』, 『길 위에서 놀다』, 『CEO 히딩크(게임의 법칙)』 등 다

양한 저서를 통해 지역문화와 인문학의 가치를 꾸준히 알려왔다. 장재선 작가는 현재 문화일보 기자로 재직 중이며, 한국시인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문학과 예술, 삶을 잇는 다양한 글쓰기를 이어오고 있다. 『별들의 위로』, 『시로 만난 별』, 『기울지 않는 길』 등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 삶의 의미를 전하며 문학의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 작가의 대표 도서뿐 아니라 김제의 옛 사진과 봉남면의 천연기념물인 행촌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280호), 종덕리 왕버들나무(천연기념물 제296호) 사진도 함께 전시해 작가들의 삶의 터전과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전시가 김제가 배출한 세 작가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책을 매개로 인문학을 더욱 친숙하게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작가와 지역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김제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3인 3색 인문학 작가전’은 오는 8월 말까지 김제시립도서관 2층 ‘김제에서(書) 찾기’ 코너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